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산사의 종소리를 들어보았는가

종소리에 담긴 메세지

국보 제36호 상원사 동종

목어 운판 법고와 함께 사물인 범종은 제자운집·독경·포살 등에 사용해와

범종 소리는 비로자나불 현신이자 법문 중생과 부처가 하나라는 깊은 진리 표현

조선시대 한문4대가(漢文四大家)의 한 사람인 택당(澤堂) 이식(李植)의 〈택당집〉 5권을 보면, 낙산사를 방문해서 지은 시(詩)가 있는데, "경어자후승최발(鯨魚自吼僧催鉢)"이라는 부분이 있다. 이는 "고래 큰소리 내어 스님들 발우공양 재촉하네"라고 직역된다. 의역(意譯)할 시에는 "범종소리 스님들 발우공양 재촉한다네"라고도 할 수 있다.

범종(梵鐘)은 목어(木魚), 운판(雲版), 법고(法鼓)와 더불어 불전사물(佛殿四物)에 속하는 장엄구이다. 원래는 부처님께서 제자운집(弟子雲集)이나 독경(讀經), 포살(布薩)에 쓰시거나, 천신(天神)의 하강(下降)을 지시할 때 사용하시던 것이라고 한다.

요즘에는 사찰의 종루에 걸고, 당목(撞木)으로 쳐서 조석예불의 첫 의식용으로 사용하거나 대중을 모으는데 쓴다. 종을 치는 이 당목은 고래의 모습으로 조각한다. 그 이유는 용뉴(龍鈕) 때문이다. 범종 상단에 뚫린 구멍인 음통(音筒) 옆에서 종을 매달 때 사용하는 이 용뉴는 용생구자설(龍生九子設)에 의하면, 용의 아홉 번째 아들인 포뢰(蒲牢)로 마음이 약하고 여린데다, 고래를 특히 무서워해서 놀라 큰소리를 지른다고 한다.

범종의 중대(가운데 부분)에 있는 네 군데 사각 곽 속의 돌기모양의 튀어나온 부분을 오랫동안 유두(乳頭, 젖꼭지)라고 불러 왔다. 최근에는 그 명칭을 바꿔서 연뢰(蓮蕾, 연꽃봉오리)라고 부르고 있는데, 적절한 명칭이라고 생각한다.

조석(朝夕) 종성(鐘聲)에 보면, 아침에는 "원컨대 이 종소리 법계에 두루 퍼져나가서, 철위산 저 어두운 지옥은 모두 밝아지오며, 삼악도 온 고통을 여의고 칼산 깨뜨려지고, 일체의 온 중생이 깨달음 얻게 하여주소서"라고 한다.

저녁에는 "종소리 듣고 번뇌를 끊고 지혜를 길러 보리가 이뤄지고, 지옥과 삼계에서 벗어나서 부처를 이루어 중생을 모두 건지오리다"라고 한다.

범종은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에 그 소리를 듣고 지옥이 밝아지고, 무너지고, 모든 중생의 번뇌가 끊기고, 깨달음을 얻고, 부처가 되어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네 개의 연곽(蓮廓)마다 각각 9개 연뢰(蓮蕾)가 있어 모두 36개이다. 종의 본체의 숫자를 합하면, 37이라는 수가 나온다. 삼십칠조도품(三十七助道品)이 생각나게 하는 법수(法數)이다. 밀교(密敎)의 금강계 만다라의 37분의 불보살인 제존(諸尊)이 생각나지 않을 수 없다.

즉, 범종은 비로자나불의 현신(顯身)이기에, 종소리는 곧 부처님 법문이 되어 깨달음을 야기하는 것이다. 즉, 중앙과 사방의 불보살님들의 중생을 향한, 시방을 향한 무한한 법문이 되어 맥놀이현상(종의 진동이 다른 두개의 소리를 나오게 만들어 서로 간섭하고 엉키며 소리가 멀리까지 가는 현상. 종의 상단과 하단의 두께를 다르게 만들어 낸다)을 통해 중생(하단)과 부처(상단)가 하나라는 깊은 진리를 소리로 표현하는 것은 아닐까 한다.

박남수(朴南秀) 시인의 '종소리'라는 시를 읽으며, 짙어가는 가을에 안개 자욱한 먼 산의 절에서 울리는 종소리를 듣고 싶다.

"나는 떠난다. 청동(靑銅)의 표면에서 /일제히 날아가는 진폭(振幅)의 새가 되어, /광막한 하나의 울음이 되어, /하나의 소리가 되어, //인종(忍從)은 끝이 났는가. /청동의 벽에 /'역사'를 가두어 놓은 /칠흑의 감방에서. // 나는 바람을 타고 /들에서는 푸름이 된다. /꽃에서는 웃음이 되고, /천상에서는 악기가 된다. //먹구름이 깔리면 /하늘의 꼭지에서 터지는 /뇌성(雷聲)이 되어, /가루 가루 가루의 음향(音響)이 된다."

동화사 포교국장

김양수의 **선화(禪畵) 읽기**

고요

풀벌레들의 울음소리 애절한 밤입니다.
밖의 것들을 하나 둘 거두워 들이고 나니
마음의 여백이 생겨납니다.
안이 풍요로울 때 삶이 고요하고 기름집니다.

한국화가(동국대 미술학부 겸임교수)

한국의 **선시감상** 조선 무용수연 선사의 '삼가 백암 스님께 올림[謹呈栢庵]'

칼날 가슴 향해도 맘 바꾸지 않으리

丈夫一委其身後 (장부일위기신후)	장부가 한번 그 몸을 맡긴 후에는
白刃當胸不易心 (백인당흉불역심)	흰 칼날 가슴을 향해도 마음 바꾸지 않으리.
況乎世界伊麼熱 (황호세계이마열)	더구나 세계가 이렇게 뜨거운데
誰外庭前栢樹陰 (수외정전백수음)	누가 뜰 앞의 잣나무 그늘을 외면하리요.

무용수연(無用秀演; 1651~1719) 스님의 이 시는 "옛 성현의 금강 선문의 자리를 빼앗을 사람"이라 한 백암 스님께 드리는 스님의 굳건한 의지가 담겨있다.

이 세상은 생로병사와 사랑하는 이와 이별하거나 원수와 만나고, 얻으려고 하나 얻지 못하고 온갖 욕망의 불꽃이 치성하는 괴로움의 바다이다. 그래서 〈법화경〉에서도 우리의 삶을 '불타는 집'에 비유했다. 우리는 욕망에 불타오르고 있다. 남보다 잘살려는 욕심에 불타오르고 남에게 인정받으려는 명예욕에 불타오른다. 사랑받기를 바라는 애욕에, 오래도록 살려고 하는 수명에 대한 집착에 불타오른다. 이 세계가 욕계인 이유다.

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 세계, 치성한 욕망의 불길이 꺼져버린 평온한 상태를 해탈이라 하고 열반이라고 한다. 이 열반에 이르기 위한 길로 부처님은 팔정도를 제시했고 역대 조사스님들은 1700공안을 제시했다.

불타는 대지에서 동동거리는 사람은 누구나 시원하고 맑은 그늘을 외면할 수 없다. 그렇다. 불타는 집에서 벗어나기 위해 '뜰 앞의 잣나무'라는 화두를 타파하면 잣나무가 가져다주는 시원한 그늘을 맛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잣나무는 어디 다른 곳에 있지 않다. 불타는 집의 뜰에 서있다. 둘이 아닌 도리를 보인 곳이다.

이 불타는 것을 어떻게 꺼야 하는가? 깨끗이 치워 버려야 한다. 땔감으로 사용되는 온갖 번뇌와 무명을 남김없이 비워야 한다. 어떻게 비울까? 내 안에 불타오르는 욕망이 나를 괴로움의 바다로 밀어 넣고 있음을 바로 본다면 날카로운 비수가 가슴에 들어와도 물러서지 않는 신심이 생기기 마련이다. 스님은 이 정견(正見)과 신심으로 수행해 훗날 백암 스님의 법을 잇게 되었다.

원법 스님(운문사 중강·조계종 교수아사리)

현대불교신문·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신뿌 출가의식 지원
  신뿌는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험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뿌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미얀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격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얀마문화원